

광주·전남 '마약 청정지대' 는 옛말



목포해경이 지난 5일 새벽 목포시 상동의 한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들을 검거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 '마약 파티' 베트남 국적 30여 명 검거 광주,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외국인·불법체류자 늘며 매년 증가...대책 시급

지난 5일 새벽 2시께 목포해경은 목포시 상동의 한 외국인 전용 주점을 급습했다. 해경이 굳게 잠긴 문을 열고 진입한 주점 안에서는 '마약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날 목포해경은 특공대 인원 14명 등 26명을 동원, 급습 작전을 통해 외국인 선원 24명과 이주여성 10명 등 외국인 3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불법체류자도 7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해경은 판매총액인 A(29)씨의 자택과 주점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합성 대마, 헤로인 등으로 추정되는 마약류를 다량 확보했다. 목포해경은 마약 공급책과 판매망 등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약 청정 지대로 꼽혔던 광주·전남이 최근 수년 새 마약사범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양귀비를 키워 사용한 경우가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브로커를 통해 상습투약하거나 여러 명이 집단으로 구매 또는 투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서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더 이상 광주와 전남지역이 마약청정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광주에서는 최근 3년 간 705명의 마약사범이 검거(구속 263명·불구속 442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304명으로 2년 전인 2018년(157명)에 견줘 1.93배 증가하는 등 광주·전남의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전남에서는 쌀 판매를 위장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은 농촌지역에서 마약을 유통한 B(50)씨와 쌀 유통업자 C(43)씨 등 9명을 붙잡아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쌀 판매로 위장해 전국 각지로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대마초 38.65g, 필로폰 1.3g, 대마 1주 등을 압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3월께 차량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6명을 붙잡은 바 있다. 이들은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광주 도심 한복판인 서구 상무지구에서 일명 '던지기' (특정 장소가 숨겨두면 찾아가는) 수법으로 합성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하려 한 2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마약 범행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며, 상대적으로 마약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농촌지역 상대로 마약 중독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교육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북구,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

국비 등 11억 투입 AI 활용 통합돌봄 특화마을 추진

광주시 북구가 복지행정 AI첨단 기술을 활용한 특화 마을을 조성한다. 9일 북구에 따르면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등 총 1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광주 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의정부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

등 5개 지자체이다. 전국 자치구와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북구가 선정됐다. 이번 조성사업은 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해 고령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됐다. 북구는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주민을 대상으로 '시티맵-인공지능

(AI)을 활용한 디지털 복지행정 통합돌봄 특화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인·중장년·청년 대상의 '응급안전 돌봄', '가상현실 운동공간 우울증 케어', '청년 창업지원 공유오피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디지털 복지행정 솔루션 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천동 재개발 사업 '시공사 갈등'

'업체 변경' 11일 총회 앞두고 조합원간 입장차 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시공업체 선정을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면서 자칫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광천동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예정된 총회에서 기존에 결정된 재개발사업 시공업체를 바꾸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합측은 이미 정해진 건설사들 대신 고급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미 정해진 건설사를 바꿀 경우 사업 기간이 늘어질 수 있는 점, 조합원 부담금 증가와 기존 건설사와의 계약 파기로 인한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

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조합측의 건설사 교체 안건을 논의하는 총회 하루 전 조합장 해임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방안이 나온 상태다. 지역 건설업체 안팎에서는 광주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을 놓고 조합원들 간 입장 차가 첨예해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도 나온다. 한편, 광주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광주 시 서구 광천동 42만 5984㎡ 부지 일대에 5611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 53동을 짓는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지난 2015년 조합이 설립된 뒤 본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고3생 532명 자가격리 수험생 교육 어쩌나 '발동동'

고교서 일주일 새 '17명 확진'...수완지구 학교 원격수업

광주지역 고등학교에서 잇달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고3 학생 500여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고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날 30일부터 이날 6일까지 고등학교 4개교에서 학생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교육청은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수완지구 인근 7·9학군(중학교 학교군) 유·초·중·고·특수 학교 89곳에 대해 7일부터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 중 고등학교는 8개교로 특성학교 2개교를 제외한 6개교의 고3 학생은 1950여명으로 확인됐다.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수험생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확진자가 발생한 4개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911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 중 고3 학생은 532명으로 파악됐다. 지난날 30일과 이날 1일 확진 학생 2명이 발생한 북구·광산구 소재 학교는 자가격리 해제일인 13일까지, 14명이 발생한 광산구 성덕고는 18일까지 의무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고 이후 등교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시 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완지구 7·9학군에 대해 원격수업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각 학교에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대처를 하고 있다"며 "시교육청도 수험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분 6개월분 감면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분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조치이다. 남구는 9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분을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 종합청사에 입주한 입주 업체 9곳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 25%를 감해 주기로 했다. 업체 9곳의 6개월분 임대료는 6936만원(월 평균 1156만원)으로, 임대료 25% 인하에 따라 1734만원을 감면 받는다. 앞서 남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입주업체에게 1989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공유재산인 구청 소유 토지는 3510필지로,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도 최대 80%까지 대부분이 지원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